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 20-4호
 2020년 3월 16일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발전 현황

▶ 전문가 칼럼 : 2019년 중국 해양이슈 회고 및 2020년 전망

▶ 동향 & 뉴스

■ 지역별 해수담수화 생산규모

(단위 : 만 톤/일)

지역	해수담수화 생산규모
랴오닝(辽宁)	8.77
톈진(天津)	31.72
허베이(河北)	17.35
산둥(山东)	28.26
저장(浙江)	23.23
장쑤(江苏)	0.52
푸젠(福建)	1.12
광둥(广东)	8.93
하이난(海南)	0.27

■ 건설된 해수담수화공정 생산규모 분포 및 점유율

구분	생산규모 (만 톤/일)	점유율
천톤급 이하	1.2641	1%
천톤급 이상 만톤급 이하	12.95	11%
만톤급 이상	105.96	88%

자료 : 자연자원부, 「2018년 전국 해수이용 보고」, KMI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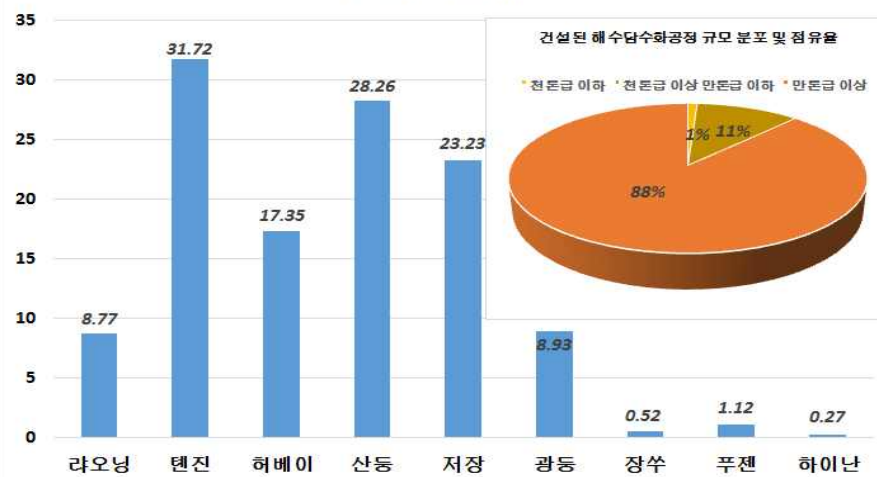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발전

(단위: 만톤/일)

해수담수화공정규모



자료 : 자연자원부, 「2018년 전국 해수이용 보고」, 2020. 1. KMI 작성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공정 총 142개, 생산규모 120만 톤/일에 달해

지난 1월에 발표된 <2018년 전국 해수이용 보고>에 따르면 2018년까지 중국 전국에서 건설된 해수담수화 공정은 142개, 생산규모는 1,201,741톤/일에 달했다. 2018년 신규 해수담수화 공정은 저장(浙江)과 광둥(广东)에 5개가 건설되었다. 신규 공정의 생산규모는 12,536톤/일이며, 주로 도시의 생활용수 및 연해도시의 공업용수에 사용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해수담수화 공정은 주로 연해 9개성(시)에 있는 수자원이 심각히 부족한 도시와 도시에 분포되어 있다. 이 중 도서지역에 건설된 해수담수화 공정 생산규모는 153,406톤/일이다. 톈진시(天津市)의 해수담수화 공정 생산규모는 317,245톤/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산둥성(山东省)과 저장성(浙江省)은 그 뒤를 이어 각각 282,625톤/일과 233,395톤/일을 기록했다. 하이난성(海南省)과 장쑤성(江苏省)은 각각 5,200톤/일과 2,685톤/일로 낮은 생산규모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전국에서 만톤급 이상의 해수담수화공정은 36개로 생산규모는 1,059,600톤/일이며, 총 생산규모에서 88%를 차지했다. 천톤급 이상 만톤급 이하의 해수담수화공정은 41개로 생산규모는 129,500톤/일이다. 천톤급 이하의 해수담수화공정은 65개로 생산규모는 12,641톤/일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발전 현황
- ▶ 전문가 칼럼 : 2019년 중국 해양이슈 회고 및 2020년 전망
- ▶ 동향 & 뉴스

저자 소개
리밍제(李明杰) 연구원
중국 자연자원부
해양발전전략연구소



전문가 칼럼 : 2019년 중국 해양이슈 회고 및 2020년 전망¹⁾

1 해양관리 관련업무 추진 가속화

2018년 국무원 조직개편 과정에서 자연자원부는 ‘양 통일(两统一) 책무’를 부여 받았다. 하나는 전국민 소유 자연자원자산의 소유자 책무를 통일적으로 이행하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국토공간용도 관제 및 생태보호·복원의 책무를 통일적으로 이행하라는 의미이다. 조직개편 이후 자연자원부는 중국을 대표해 전국민 소유의 토지, 광산, 삼림, 초원, 습지, 수자원, 해양 등의 해양자원 자산에 관한 소유자 책무를 이행하게 된다. 생태환경부는 전국의 육지와 해양 환경 보호에 관한 직책을 이행하게 된다.

1. 자연자원부 산하의 3개 해역국 현판식 완료

2019년 6월~7월, 자연자원부 산하의 3개 해역국이 현판식을 완료했다. 2019년 5월10일에 발표한 「자연자원부 북해국, 동해국, 남해국 직능배치, 내설기구와 인원편성 규정」에 의거하여 자연자원부는 북해, 동해와 남해 해역국의 해양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북해국(北海局), 동해국(东海局)과 남해국(南海局)을 설치했다. 북해국은 칭다오(青岛)에 설립되어 있으며, 라오닝(辽宁), 허베이(河北), 텐진(天津)과 산둥(山东)의 4개 연해 성(시)의 관할해역을 관할한다. 동해국은 상하이에 설립되어 있으며 장쑤(江苏), 상하이(上海), 저장(浙江)과 푸젠(附件)의 4개 연해 성(시)의 관할해역을 관할한다. 남해국은 광저우(广州)에 설립되어 있으며 광둥(广东), 광시(广西), 하이난(海南)의 3개 연해 성(구)의 관할해역을 관할한다.

2. 연안개발을 국토공간 계획 체계로 포괄

2019년에 발표한 「중공중앙·국무원 국토공간계획체계 수립 및 감독 실시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서는 국가가 국토공간 계획 체계를 수립하고, 주체기능구 계획, 토지이용 계획 및 도농계획을 비롯한 공간계획을 국토공간계획으로 통합시키는 ‘다규합일(多规合一)’을 실현한다고 제시했다. 동 「의견」은 연안과 자연보호지 관련 전문계획 및 행정구역 간 또는 수역 간의 국토공간계획에 대해서는 소재구역의 자연자원 주관 부문이나 상급 자연자원주관부문이 주도하고 편성을 진행하며, 동급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토공간 계획제도와 체계의 수립은 전체 국토공간에 대한 용도 관제를 통일시키고 해역과 연안의 생태보호와 복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안보호 관리에 관한 입법과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2019년에 자연자원부가 연안계획 편성작업을 시작했다. 육·해 통합과 고품질 발전의 요구에 따라 연

1) 이 칼럼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KMI 중국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발전 현황
- ▶ 전문가 칼럼 : 2019년 중국 해양이슈 회고 및 2020년 전망
- ▶ 동향 & 뉴스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구분	01/03	03/13
종합지수	897.53	898.44
일본 향로	731.59	759.98
구주 향로	1,069.06	1062.29
미서부 향로	681.52	712.68
미동부 향로	884.09	928.13
한국 향로	602.18	574.89

주 : '01/03'는 2020년 1월 3일 지수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01-03	03-13
종합지수	1,121.76	901.18
석탄	1,038.96	873.37
곡물	933.03	609.29
금속광석	1,069.81	944.52
정유	1,925.55	1317.90
원유	1,557.48	1557.48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안 보호·이용의 공간구도를 잘 계획함으로써, 연안지역에서의 자원환경과 사회경제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안계획의 편성과 결합하여 갯벌 중점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갯벌 전체에 대한 보호와 적절한 이용에 관한 관리제도, 연안 동태적 모니터링 조정제도 및 구역 간 생태보상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자원에 대한 배치를 최적화시키고 파괴된 갯벌과 연해습지에 대한 생태복원 및 종합정돈을 강화하였다. 자연자원부는 2019년에 「산동성 연안 보호와 이용 계획」 및 「칭다오시 연안 전문계획」의 편성작업을 연이어 개시했다.

3. 바다매립의 과거 현안 처리 가속화

2019년 1월, 자연자원부는 「바다매립 잔존 현안문제 처리에 관한 요구」를 발표했다. 이 「통지」는 이미 해양이용권을 얻었지만 아직 개발·이용하지 않은 경우나 해역이용권을 아직 얻지 못한 경우의 바다매립과 관련한 잔존 현안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정책을 수립했다. 이는 해양자원에 대한 보호, 복원과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통지」는 바다매립 과정에서 남겨진 현안 문제 처리에 관한 실천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관련 문제 처리절차와 요구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2 연해지역의 대외개방 및 해양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

연해지역은 중국 대외개방의 선도지역이며, 해양경제는 중국 국민경제 발전의 중요한 대상이자 대외개방의 중요한 플랫폼이다.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고품질 발전' 및 '해양강국 건설 가속화'의 전략을 제시됨에 따라 연해지역에서 새로운 차례의 개방국면이 형성되어 해양산업의 구조조정도 촉진해왔다.

1.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발전계획 강요」 발표

2019년 2월18일, 중국정부는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계획 강요」를 발표했다. 이 「강요」에서는 해양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 보호제도를 실시하여 해안선 보호·관제 및 해양자원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고 제시했다. 이 「강요」는 웨강아오대만구 현재 단계와 향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도 정책이다.

2. 연해지역 해양중심도시 건설의 목표 수립

「전국해양경제발전 '13·5'계획」은 선전(深圳)과 상하이(上海) 등 도시를 글로벌 해양중심도시로 건설하고, 투융자, 서비스무역과 비즈니스 관광 등 분야에서 대외개방 수준과 국제영향력을 진일보 향상시켜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선도자와 주력군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발전 현황
- ▶ 전문가 칼럼 : 2019년 중국 해양이슈 회고 및 2020년 전망
- ▶ 동향 & 뉴스

① 선전(深圳) 방안

선전시 정부는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의 비전 아래, 일련의 정책조치와 액션플랜을 제정했다. 2018년 10월 선전시는 「해양강국 건설 선두자로서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가속화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는데, 2035년까지 글로벌 해양중심도시를 기본적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결정」은 해양 산업, 과학기술, 공간, 생태, 문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등 여러 분야를 포괄시켰으며, 선전시의 해양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 후에 선전시는 국제화가 되는 종합 해양대학교 및 글로벌 해양 싱크탱크의 설립 등의 중점 업무도 제시했다.

2019년 8월18일, 중앙정부는 「선전시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선전시의 글로벌 해양중심도시의 건설을 지지하며, 해양대학교와 국가 심해과학탐사센터를 설립하고 국가해양개발은행의 설립을 모색한다는 요구를 제시했다.

② 톈진(天津) 방안

2019년 12월, 톈진시 정부는 「더 효과적인 새로운 지역 조화로운 발전 메커니즘 수립에 관한 실시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서는 지역전략 통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육·해통합 발전을 추진하며, 톈진시를 글로벌 해양중심도시로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③ 저장(浙江) 방안

2020년 1월에 발표된 저장성의 정부업무 보고에 따르면, 글로벌 해양중심도시의 건설을 도모하고 저우산(舟山)군도신구 및 해양경제발전시범구의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Ningbo(宁波)-타이저우(台州)-온저우(温州) 임항산업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경제 부가가치액 성장률은 8%이상에 달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3. 광시 서부 육·해 신통로 건설

2019년 8월15일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서부 육·해 신통로 종합계획」에 따르면, 서부 육·해 신통로의 건설을 가속화시키고 서부지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는 중추역할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육·해 쌍방향 개방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서부대개발의 새로운 국면의 형성을 촉진하여 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11월26일, 광시 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한 4개 기관은 「서부 육·해 신통로 건설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를 발표했으며, 인프라 건설과 제품·서비스 혁신에 관한 금융지원을 마련하여 관련 18개 조치를 제시했다. 또한, 서부 육·해 신통로 건설을 위한 금융지원 방법을 모색하였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발전 현황
- ▶ 전문가 칼럼 : 2019년 중국 해양이슈 회고 및 2020년 전망
- ▶ 동향 & 뉴스

3 해양생태문명 건설 강화

2012년에 개최된 중국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경제 성장 방식 전환’ 및 ‘생태문명 건설’의 이념이 제시된 이후, 해양자원 개발방식과 해양경제 발전방식이 해양자원에 대한 ‘집약·절약·고효율·합리적인’ 이용 방식 및 해양생태환경 보호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1. 해양운명공동체 공동 구축 이념 제시

2019년 4월 23일, 시진핑 주석은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해군 창립 7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외국대표단 단장과 회견했을 때 ‘더 많은 의견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여 해양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고 호소했다.

해양운명공동체의 구축은 해양으로 세계 각국을 한 공동체로 연결시켜 해양의 상호연통을 촉진하고, 각 해양분야에서 실무적인 협력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면서 해양문화 간의 융합을 조성하고 해양관련 복지를 함께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해양운명공동체의 구축은 인류문명공동체 구축의 중요한 내용이다. 해양운명공동체의 이념은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을 발전시키는 결과물이고,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이 해양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기여하는 또 다른 중국의 지혜이자 중국의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계 발전을 촉진하고, 각국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하이난성(海南省) 국가생태문명실험구 건설

2019년 5월, 중앙정부는 「국가생태문명실험구(하이난)실시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실시방안」에서 하이난성의 생태적 우위조건을 발휘하고 생태문명체제의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생태문명실험구를 건설한다고 제시했다.

실험구 건설의 주요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2020년까지 실험구 건설에 중요한 진전을 실현하고, 육·해 통합되는 국토공간보호 개발 제도가 기본적으로 수립되며, 국토공간 개발구도가 더욱 최적화되어야 한다. 둘째, 연안해역의 수질이 우량수준에 도달하는 비율은 98%에 달해야 한다. 셋째, 습지면적이 최소 480만묘를 유지하고, 하이난도(海南島)의 자연해안선 보유율은 최소 60%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이 「실시방안」은 실험구 건설의 중점임무를 제시했다. 국토공간개발보호제도 수립에 관해서는 해양생물자원 보호선(保护线)과 바다매립 통제선을 확정하고, 자연생태공간에 대한 용도 관제를 엄격히 실시한다는 요구가 제시되었다. 또한, 2020년까지 연안해역의 생태보호 레드라인 면적은 하이난도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발전 현황
- ▶ 전문가 칼럼 : 2019년 중국 해양이슈 회고 및 2020년 전망
- ▶ 동향 & 뉴스

연안해양 총 면적에서 최소 35.1%를 차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구역 체계를 수립하고, 해양자연보호수역을 다시금 통합할 것이다.

3. 보하이(渤海) 종합정돈 추진

2018년 11월,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자연자원부는 「보하이 종합정돈 공견전(攻坚战) 액션플랜」을 발표했는데, 2020년까지 보하이 연안수역의 수질이 우량수준(1~2등급)에 도달한 비율은 73%에 달해야 하고, 자연해안선 보유율은 최소 35%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복원된 연해습지 규모는 최소 6,900헥타르에 달하며, 70km의 해안선을 새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에 생태환경부는 관련기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육지 오염원 정돈, 해양오염 정돈, 생태보호와 복원 및 환경 리스크 방제 등에 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2019년에 13개 연해도시(구)에서 보하이 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 배출구에 관한 1급과 2급 수준의 조사를 마쳤으며, 지금 3급 수준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4 해양권익과 해양안전 수호

중국 주변의 해양형세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주변 해양국가와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역내 해양국가와의 분쟁과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제하고 있다. 또한 다자 메커니즘 수립은 주변 해양환경을 수호하는 플랫폼이 되어 중국과 주변 해양국가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해양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다. 역외세력의 도발적인 행위, 이웃 해양국가와의 분쟁 및 타이완 정세의 변화 등을 대응할 때 경계하면서도 계속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 해양발전 촉진 및 좋은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운명공동체의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주변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1. 중국과 주변국가 간의 해양관계, 안정적 발전추세 유지

1) 중-일 관계 계속 개선

중-일 양국 정상은 오사카에서 달성된 중요한 합의에 따라 신시대의 요구에 부합한 중-일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동중국해를 평화, 협력, 우호의 바다로 건설하는 데 동의했다. 또한, 중-일 해양사무 고위급 협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메커니즘을 통해 양국은 동중국해의 정치·법률, 해상 국방사무, 해상 법 집행과 안전 및 해양경제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나누었고 해상협력의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발전 현황
- ▶ 전문가 칼럼 : 2019년 중국 해양이슈 회고 및 2020년 전망
- ▶ 동향 & 뉴스

중-일 국방기관 간의 대화와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양국 국방기관 간에 수립된 해·공 연락 메커니즘은 2018년 6월부터 정식으로 가동되었다.

해상분야 저 민감 분야에 관한 협력에 있어서는 「중-일 해상구조 협정」이 2019년 2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중국해상구조센터와 일본해상보안청은 「중-일 해상구조 협정」의 프레임 밑에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고효율적인 구조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일 양국은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상호 통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양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양국 전문가 간의 대화를 강화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외에는 어업, 해양지질과학, 자원·에너지 정책, 북극 과학연구 및 해양관련 싱크탱크 대화 등에 있어도 적극적인 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2) 한-중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담판 추진

2019년 7월25일, 뤼자오휘(罗照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이태호 한국외교부 제2차관은 베이징에서 중-한 해역경계획정 정부담판대표단 제2차 회담을 공동 진행했다. 양측은 중-한 해역경계획정 담판이 개시된 이후 여러 합의를 달성했으며, 경계획정의 관련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호적인 협상방식으로 양국 간의 해역경계획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해양협력 강화 및 중-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관계 추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고 있다.

3) 중국-필리핀 간 정기 대화 플랫폼 구축으로 양자관계 발전과 남중국해 평화·안정 촉진

중국-필리핀은 양국 간의 남중국해 양자협상 메커니즘(BCM)을 통해 해상 실무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분쟁을 적절하게 관제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서로 간의 대화와 신뢰감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 메커니즘은 남중국해의 정치적 안전 형세, 해상구조, 해사안전, 해양과학연구, 환경보호 및 어업 등 관련 분야를 포괄했다. 또한 이 메커니즘을 통해 해상 석유·가스 개발과 협력 및 상호 교류·방문의 시스템 수립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특히 석유·가스 개발과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은 석유·가스 정부간 합동지동위원회를 설립했고 <석유·가스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석유·가스의 개발과 협력에 관한 소통과 조정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 해상 저 민감 분야는 중국-베트남 양국 협력의 새로운 포인트로 부상

중국-베트남 정부급 변경 담판 메커니즘은 실무적인 협력 심화, 적절한 분쟁 관제 및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작용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하에 설치된 베이부완(北部湾)만구(湾口) 밖 해역 관련 업무팀, 해상 저 민감 분야 협력 전문가업무팀 및 해상 공동 개발·협상 업무팀은 모두 적극적인 업무성과를 도출했다. 또한, 관련 해양경계획정과 공동개발 문제에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발전 현황
- ▶ 전문가 칼럼 : 2019년 중국 해양이슈 회고 및 2020년 전망
- ▶ 동향 & 뉴스

있어 양국은 협상을 통해 더 큰 범위의 남중국해 해역에서의 관련 협력과 공동개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동조사, 남중국해 석유·가스 공동 개발 및 어업협력 등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2. 남중국해 지역 이슈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에 관한 협상은 분수령에 들어섰다. 2019년 10월 15일,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 이행에 관한 제18차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남중국해의 형태, ‘DOC’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이행, 해상 실무적 협력 강화 및 ‘COC’ 협상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각국은 현재의 남중국해 국면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DOC’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수호 및 각국 간의 신뢰감 증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거듭 표명했다. 회의에서는 ‘COC’ 초안의 2차 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해상 실무적 협력에 관한 신규사업을 심사했으며, 「‘DOC’ 이행에 관한 2016-2021 업무계획」을 업데이트했다.

미국은 ‘항행자유’ 작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 보도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항행자유’ 작전은 7번이나 있었다. 또한, 미국은 일본, 호주, 영국과 인도 등 연맹국가와 함께 남중국해 및 주변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전개했다. 이는 남중국해의 해상안전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주변 국가는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관련 행동을 계속 취하고 있다. 2019년 5월~10월 동안에 베트남은 일방적으로 난사 만안탄(万安滩) 해역에서 재차 석유·가스 탐사활동을 실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14년에 발생한 ‘중젠난(中建南) 사건’ 이후의 중국과 베트남 간에 또 다시 심각하고 긴 해상대치가 유발되었다.

5 광범위한 국제협력 전개

1. 난사군도(南沙群岛)에서 해상구조센터 설립

2018년 7월27일, 교통운수부는 난사군도 주비자오(渚碧礁)에 ‘남구조 115’ 해양구조선을 파견했고, 남중국해 남부해역에서 수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29일, 교통운수부 난사군도 해상구조센터는 난사군도 용수자오(永暑礁)에서 설립되었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남중국해 해역의 해상항행과 운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이다. 신설된 난사군도 해상구조센터는 중국이 남중국해 남부해역에서 해상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인 보장 지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7월부터 중국의 전문적인 구조팀이 난사군도에 입주해 일상화된 수호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 ‘남해구조 115호’와 ‘남해구조117’호가 남중국해 남부해역에서 번갈아 해상안전을 지키고 있다. 그 기간에 8건의 구조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조난자 16명, 조난 선박 2척을 성공적으로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발전 현황
- ▶ 전문가 칼럼 : 2019년 중국 해양이슈 회고 및 2020년 전망
- ▶ 동향 & 뉴스

구조했고 1200만 위안 가치의 재산 손실을 면했다.

2. 제1차 중국-유럽연합 해양 ‘블루파트너 관계’ 포럼 개최

2019년 9월5일, 제1차 중국-유럽연합 해양 ‘블루파트너 관계’ 포럼이 벨기에 브뤼셀에 개최되었다. 이는 2017년에 개최된 ‘중국-유럽연합 블루 해’ 및 2018년에 체결한 「해양분야에서 블루파트너 관계 수립에 관한 선언」 이후 양측이 해양협력에 관한 또 다른 새로운 성과를 도출한 것이다. 이는 신시기에 중국과 유럽연합 간에 수립된 ‘블루파트너 관계’가 더욱 심층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며, 중국과 유럽연합이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이번 포럼은 ‘블루 해양파트너 관계의 계기와 전망’을 주제로 정부, 산업, 학자, 연구기관과 NGO 조직 등 이익관계자를 위한 평등하고 개방적인 교류 플랫폼을 만들어 주었다. 각 관계자가 공동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해양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했고, 해양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을 통한 사회경제 발전 촉진 등 분야에서 심층적인 협력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3. 국제해저구역에서 독점탐사권 재차 획득

2019년 7월15일, 자메이카 수도인 킹스타운에서 개최된 국제해저기구 제25차 회의에서 베이징선취첨단기술개발기업(北京先驱高技术开发公司)이 제출한 망간단괴 탐사계획이 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받은 탐사구역은 서태평양 국제해저구역에 위치하고, 7.4km²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구역」 내 망간단괴 광구 탐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베이징선취첨단기술개발기업은 ‘parallel system’ 제도에 따라 같은 상업적 가치를 지닌 2개 구역을 신청했는데, 그 중 하나가 탐사구로 확정됐고, 다른 하나는 국제해저기구의 보류구역으로 남게 되었다. ‘parallel system’ 제도와 보류구역은 ‘인류공동재산 계승’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는 발전도상 국가도 국제해저자원 탐사·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보류구역을 제출하는 것은 중국이 국제해저사업을 위한 또 하나의 기여로 볼 수 있다.

4. 주변 어업협력 활발히 전개

2019년에 제9차 한-중 어업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제2차 한-중 어업 자원 합동 증식방류(增殖放流) 및 제19차 한-중 어업 합동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2019년에 한국 해역에서 불법 어획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전년대비 20% 이상 줄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은 중국-베트남 베이부완 어업협정 실시 15주년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서 협정 실시 15주년에 관한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외에는 중국-필리핀 어업 합동위원회 제3차 회의도 개최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발전 현황
- ▶ 전문가 칼럼 : 2019년 중국 해양이슈 회고 및 2020년 전망
- ▶ 동향 & 뉴스

6 2020년 전망

1.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계속 촉진

2019년 1월17일에 개최된 중국 전국 자연자원업무회의에서 ‘해양강국 건설 강화,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의 요구가 제시된 후, 각 연해지역과 해양관련 산업은 관련 정책과 조치를 연이어 내놓았다. 2020년은 관련 정책 이행의 중요한 시기이며, 개혁혁신, 품질제고, 과학기술 지원 및 정책보장 등 면에서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지원을 더 많이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2. 해양생태환경 보호

2019년에 생태환경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부와 함께 보하이(渤海)에 대한 종합정돈을 실시했다. 또한 2020년까지 보하이의 연안해역 수질이 우량수준(1~2등급)에 도달한 비율은 73%에 달해야 하고, 자연해안선 보유율은 35%를 유지하여 복원된 연해습지 면적은 최소 6,900헥타르, 새로 복원된 해안선은 70km에 달해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2020년은 목표 달성의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해안선 복원과 연해습지 정돈 등 중점사업 추진에 대해 강화될 전망이다.

3. 안정적인 주변 해양환경 조성

2019년의 중국 주변 해양환경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국면이 나타났다. 중국과 주변 국가는 여러 형식으로 해양협력을 전개하면서 해양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촉진했다. 2020년에 중국은 한국, 일본, 남중국해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고, 평화·안정의 주변 해양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서태평양에서의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장기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동중국해,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중-미간 해상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전통적인 해양안전 위협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발전 현황
- ▶ 전문가 칼럼 : 2019년 중국 해양이슈 회고 및 2020년 전망
- ▶ 동향 & 뉴스

칼럼 원문

2019中国海洋热点回顾与2020年展望

一、2019年中国海洋热点回顾

(一) 海洋管理工作继续加快推进

在2018年的机构改革中,自然资源部被赋予“两统一”职责,即统一行使全民所有自然资源资产所有者职责,统一行使所有国土空间用途管制和生态保护修复职责。改革后,自然资源部代表国家履行全民所有土地、矿产、森林、草原、湿地、水、海洋等自然资源资产所有者职责,生态环境部履行全国陆地和海洋环境保护职责。

1. 自然资源部三个海区局完成挂牌

2019年6-7月,自然资源部3个海区派出机构全部完成挂牌。按照2019年5月10日印发的《自然资源部北海局、东海局、南海局职能配置、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自然资源部在北海海区、东海海区、南海海区分别设立北海局、东海局、南海局,作为履行北海海区、东海海区、南海海区海洋自然资源工作的派出机构。北海局驻地青岛,所辖区域包括辽宁、河北、天津、山东4个省(市)沿海毗邻的我国管辖海域;东海局驻地上海,所辖区域包括江苏、上海、浙江、福建4个省(市)沿海毗邻的我国管辖海域;南海局驻地广州,所辖区域包括广东、广西、海南3个省(区)沿海毗邻的我国管辖海域。

2. 海岸带发展融入国土空间规划体系

2019年发布实施的《中共中央国务院关于建立国土空间规划体系并监督实施的若干意见》进一步明确,国家将建立国土空间规划体系,将主体功能区规划、土地利用规划、城乡规划等空间规划融合为统一的国土空间规划,实现“多规合一”。该“指导意见”明确海岸带、自然保护区等专项规划及跨行政区域或流域的国土空间规划,由所在区域或上一级自然资源主管部门牵头组织编制,报同级政府审批。国土空间规划制度和体系的建立对于统一行使所有国土空间用途管制、加强海域和海岸带生态保护修复具有重要意义。

在海岸带保护管理立法、规划方面,2019年自然资源部将开展海岸带规划编制工作,按照陆海统筹与高质量发展的要求,谋划好海岸带地区保护与利用空间格局,有效解决海岸带地区资源环境与经济社会发展的突出矛盾。结合海岸带规划编制工作,强化滩涂重点区域管理,开展滩涂整体保护和适度利用管理制度、海岸带动态监测调整制度以及跨区域生态补偿制度等研究,加强滩涂受损滨海湿地生态恢复修复和综合治理。2019年,自然资源部还先期启动了《山东省海岸带保护与利用规划》、《青岛市海岸带专项规划》二个省市级规划的编制工作。

3. 加快处理围填海历史遗留问题

2019年1月,自然资源部印发《关于进一步明确围填海历史遗留问题处理有关要求的通知》。这是自然资源部针对已取得海域使用权但未开发利用的和未取得海域使用权的两种围填海历史遗留问题情形制定的专门政策,旨在进一步促进海洋资源保护、有效修复和集约利用。《通知》以党的十九大精神和全面深化改革的要求为指导,坚持问题导向,在深入总结围填海历史遗留问题处理实践基础上,重点对地方处理围填海历史遗留问题的工作程序和要求进行了明确和规范,以指导地方加快处理围填海历史遗留问题。

(二) 促进沿海地区对外开放和海洋经济健康发展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발전 현황
- ▶ 전문가 칼럼 : 2019년 중국 해양이슈 회고 및 2020년 전망
- ▶ 동향 & 뉴스

沿海地区是中国对外开放的前沿，海洋经济是我国国民经济的重要支撑，是对外开放的重要载体。党的十九大关于“高质量发展”和“加快建设海洋强国”的战略部署，形成了沿海地区新一轮开放的态势，也促进了海洋产业转型升级。

1. 中共中央/国务院印发《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

2019年2月18日，中共中央、国务院印发《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规划纲要》明确，大力发展海洋经济，实行最严格生态环境保护制度，加强海岸线保护与管控，加强海洋资源环境保护，更加重视以海定陆。该纲要是指导粤港澳大湾区当前和今后一个时期发展的纲领性文件。

2. 各地纷纷推进海洋中心城市建设

《全国海洋经济发展“十三五”规划》明确，推进深圳、上海等城市建设全球海洋中心城市，在投融资、服务贸易、商务旅游等方面进一步提升对外开放水平和国际影响力，打造成为“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排头兵和主力军。

(1) 深圳方案

深圳市委、市政府以建设全球海洋中心城市为总纲，拟定了一系列政策措施和行动计划。2018年10月，深圳发布《关于勇当海洋强国尖兵 加快建设全球海洋中心城市的决定》，明确到2035年，基本建成全球海洋中心城市。《决定》涵盖了海洋产业、科技、空间、生态、文化和全球治理等各领域，明确了深圳的海洋发展方向。随后，深圳推出了创建一所国际化综合性海洋大学、打造一个全球海洋智库等“十个一”工程和65个重点项目。

2019年8月18日，《中共中央 国务院关于支持深圳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的意见》发布。意见明确提出，支持深圳加快建设全球海洋中心城市，按程序组建海洋大学和国家深海科考中心，探索设立国际海洋开发银行。

(2) 天津方案

2019年12月，天津市委、市政府印发《关于建立更加有效的区域协调发展新机制的实施方案》。《方案》明确，落实区域战略统筹机制，推动陆海统筹发展，建设全球海洋中心城市。

(3) 浙江方案

2020年1月浙江省政府工作报告中提出，谋划建设全球海洋中心城市，深入推进舟山群岛新区和海洋经济发展示范区建设，建设甬台温临港产业带，力争海洋经济增加值增长8%以上。

3. 广西西部陆海新通道建设取得突破性进展

2019年8月15日，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印发《西部陆海新通道总体规划》指出，加快西部陆海新通道建设，对于充分发挥西部地区连接“一带”和“一路”的纽带作用，深化陆海双向开放，推进西部大开发形成新格局，推动区域经济高质量发展，具有重大现实意义和深远历史意义。

2019年11月26日，广西壮族自治区发展和改革委员会等四部门关于印发《金融支持西部陆海新通道建设的若干政策措施》，围绕金融支持基础设施建设、支持产品和服务创新、建立政策保障机制3个方面，提出18项举措，探索金融支持西部陆海新通道建设路径。

(三) 加强海洋生态文明建设



CONTENTS

2012年, 党的十八大提出“转变经济增长方式”和“建设生态文明”的理念以来, 海洋资源开发和海洋经济发展的方式、思路也由过去粗放型、资源消耗型向注重“集约节约高效合理”利用海洋资源、重视海洋生态环境保护的方式转变。

1. 提出共同构建海洋命运共同体理念

2019年4月23日, 习近平主席在青岛集体会见应邀出席中国人民解放军海军成立70周年多国海军活动的外方代表团团长时, 提出集思广益、增进共识, 努力为推动构建海洋命运共同体贡献智慧。

构建海洋命运共同体, 将以海洋将世界各国连结成一体, 促进海上互联互通, 在各涉海领域开展务实合作, 推动蓝色经济发展, 推动海洋文化交融, 共同增进海洋福祉。

构建海洋命运共同体, 是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要内容。海洋命运共同体理念, 是对人类命运共同体理念的丰富和发展, 是人类命运共同体理念在海洋领域的具体实践, 是中国在全球治理特别是全球海洋治理领域贡献的又一“中国智慧”“中国方案”, 必将有力推动世界发展进步, 造福各国人民。

2. 海南建设国家生态文明试验区

2019年5月,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印发了《国家生态文明试验区(海南)实施方案》, 提出要进一步发挥海南省生态优势, 深入开展生态文明体制改革综合试验, 建设国家生态文明试验区。

试验区建设的主要目标包括: 到2020年, 试验区建设取得重大进展, 以海定陆、陆海统筹的国土空间保护开发制度基本建立, 国土空间开发格局进一步优化; 近岸海域水生态环境质量优良率在98%以上; 湿地面积不低于480万亩, 海南岛自然岸线保有率不低于60%, 等等。

《方案》明确了试验区建设的重点任务。在构建国土空间开发保护制度方面, 要求划定海洋生物资源保护线和围填海控制线, 严格自然生态空间用途管制, 到2020年近岸海域生态保护红线面积占海南岛近岸海域总面积不少于35.1%。建立以国家公园为主体的自然保护地体系, 整合重组海洋自然保护地。

3. 推进渤海综合整治

2018年11月, 生态环境部、国家发展改革委、自然资源部联合印发《渤海综合治理攻坚战行动计划》, 提出到2020年, 渤海近岸海域水质优良(一、二类水质)比例达到73%左右, 自然岸线保有率保持在35%左右, 滨海湿地整治修复规模不低于6900公顷, 整治修复岸线新增70公里左右。

2019年, 生态环境部会同相关部门和地方积极推进陆源污染治理、海域污染治理、生态保护修复、环境风险防范等工作。2019年, 渤海入海排污口排查整治工作已经完成了13个沿海城市(区)一级和二级排查, 正在进行三级排查。

(四) 维护海洋权益和海洋安全

中国周边海洋形势总体稳定。中国继续加强与周边海洋邻国关系, 域内国家妥善管控风险分歧。同时, 各种多边机制也成为中国与周边海洋邻国增进交流与合作, 维护海洋周边环境的积极平台。同时, 影响中国海洋发展的不确定因素也依然存在。对域外势力的挑动, 海洋邻国间的争议, 台海局势的起伏等都需要保持足够冷静和警惕。中国作为负责任大国, 为促进中国海洋发展, 营造良好地区环境, 提出海洋命运共同体理念推进中国与周边海洋邻国的交流与合作。

1. 中国与周边国家海洋关系稳步推进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발전 현황
- ▶ 전문가 칼럼 : 2019년 중국 해양이슈 회고 및 2020년 전망
- ▶ 동향 & 뉴스

中日关系持续改善发展。双方积极落实中日领导人大阪会晤达成的重要共识，努力构建契合新时代要求的中日关系。两国高层交往不断，包括两国领导人会晤，高级别政治对话，时隔7年重启战略对话。中日同意坚持把东海建设成为和平、合作、友好之海的共识。中日海洋事务的高级别磋商持续推进。两国在此机制下就涉及东海的政治与法律、海上防务、海上执法与安全、海洋经济等问题交换意见，探讨开展海上合作的方式。日中防务部门增进多层次对话与交流，推进相互理解与培养信任。双方防务部门海空联络机制自2018年6月正式启用以来，得到有效运用。在海上低敏感领域，《中日海上搜救协定》于2019年2月生效。中国海上搜救中心与日本海上保安厅确认在《中日海上搜救协定》框架下促进信息分享，推进顺畅高效的搜救合作。中日还就海洋科考设有相互通报框架。在海洋垃圾问题上，开展专家对话和联合调查。此外，在渔业、海洋地质科学、资源能源政策、北极科研、涉海智库对话等方面有着积极互动。

中韩就海域划界开展谈判。2019年7月25日，外交部副部长罗照辉与韩国外交部第二次官李泰镐在北京共同主持中韩海域划界政府谈判代表团第二轮会谈。双方确认了中韩海域划界谈判启动以来达成的有关共识，并就划界有关问题交换了意见。双方一致认为，两国通过友好协商解决海域划界问题，对于两国关系长期稳定发展，进一步加强海洋合作，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不断发展具有重要意义。

中菲之间的定期对话平台促进双边关系发展和南海和平稳定。两国通过中国—菲律宾南海问题双边磋商机制（BCM）推进海上务实合作，探讨妥善管控和处理分歧的方式方法，不断增进对话与互信。该机制交流涵盖南海政治安全形势发展、海上搜救、海事安全、海洋科研与环保、渔业等相关领域，并探讨海上油气开发合作、建立有关互访交流机制。在油气开发合作上，中菲成立油气开发合作政府间联合指导委员会，同意继续推进油气开发合作沟通与协调，争取根据中菲《关于油气开发合作的谅解备忘录》取得进展。

中越海上低敏感领域合作已成为两国务实合作的亮点。中越的政府级边界谈判机制在深化务实合作、妥善管控分歧、推动两国关系健康稳定发展方面发挥的重要作用。该机制下设有北部湾湾口外海域工作组、海上低敏感领域合作专家工作组、海上共同开发磋商工作组，都已取得积极工作成果。在北部湾湾口外海域划界和共同开发问题上，双方开展磋商并积极探讨在南海更大范围海域开展有关合作和共同开发，就北部湾湾口外海域共同考察及在南海开展油气共同开发和渔业合作等充分交换意见。

2. 南海地区热点不断

COC谈判进入关键期。2019年10月15日，落实《南海各方行为宣言》第18次高官会召开，各方深入讨论了南海形势、全面有效落实《宣言》、加强海上务实合作以及“南海行为准则”磋商等议题。各方认为当前南海局势总体稳定，重申全面有效落实《宣言》对维护南海和平稳定、增进各方信任和信心的重要意义。会议就“准则”案文第二轮审读充分交换了意见，审议确认了新的海上务实合作项目，并更新了《落实〈宣言〉2016-2021年工作计划》。

美国航行自由计划持续进行。2019年美国在南海针对中国的“航行自由行动”公开报道可查的就有七次之多，频率之高、挑衅性之强前所未有。美国还联手日本、澳大利亚、英国、印度等盟友伙伴国家，开展双多双边联合军演，使得海上安全态势更加扑朔迷离。周边国家在南海单边行动持续不断。2019年5月至10月，越南再次单方面启动南沙万安滩海域油气勘探活动，在靠近我国“万安北-21”区块（越方称“06-1”）实施深海钻探，引发中越自2014年“中建南事件”以来又一次也是最严重、最漫长的一次海上对峙。

（五）开展广泛国际合作

1. 在南沙群岛建立海上救助中心

2018年7月27日，交通运输部派遣海洋救助船“南海救115”轮进驻南沙群岛渚碧礁，开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발전 현황
- ▶ 전문가 칼럼 : 2019년 중국 해양이슈 회고 및 2020년 전망
- ▶ 동향 & 뉴스

始执行南海南部海区应急值守任务。2019年1月29日，交通运输部南沙群岛海上救助中心在南沙群岛永暑礁挂牌成立，这是我国政府履行国际公约，保障南海海域海上航行和运输安全的具体举措。新成立的南沙群岛海上救助中心，将为我国在南海南部海区海上救助工作提供更为有效的综合保障支持。

自2018年7月我国专业救助力量进驻南沙群岛开展常态化值守以来，“南海救115”轮、“南海救117”轮在南海南部海区轮换值守，其间圆满完成8起救助任务，成功救助遇险人员16人、遇险船舶2艘，获救财产价值约人民币1200万元。

2. 首届中欧海洋“蓝色伙伴关系”论坛举办

2019年9月5日，首届中国-欧盟海洋“蓝色伙伴关系”论坛在比利时首都布鲁塞尔举办。这是继2017年双方共同举办“中国-欧盟蓝色年”和2018年双方正式签署《在海洋领域建立蓝色伙伴关系的宣言》后，中欧在海洋合作领域取得的又一重要进展。这标志着新时期中欧海洋“蓝色伙伴关系”走深走实，展现了中欧在全球海洋治理中的责任与担当。

此次论坛以“蓝色海洋伙伴关系的机遇和前景”为主题，通过为政、商、产、学、研和非政府组织等利益相关方搭建开放平等的交流平台，鼓励各方就共同关心的全球海洋问题进行深入探讨，在持续利用海洋以实现经济社会发展等领域开展深度合作。

3. 我国在国际海底区域再获专属勘探区

2019年7月15日，在牙买加首都金斯敦举行的国际海底管理局第25届会议上，北京先驱高技术开发公司提交的多金属结核勘探计划获得批准。

此次获批勘探区位于西太平洋国际海底区域，面积约7.4万平方公里。根据《“区域”内多金属结核勘探和勘探规章》，北京先驱高技术开发公司按照平行开发制，向国际海底管理局提交了两块具有同等商业价值的区域，其中一块为此次核准的勘探区，另一块将作为国际海底管理局保留区。平行开发制和保留区是落实“人类共同继承财产”原则，确保发展中国家可以参与国际海底资源勘探开发的重要机制。提交保留区是中国对国际海底事业做出的又一贡献。

4. 周边渔业合作亮点纷呈

2019年，举办了第九届中韩渔业高级别会议，第二次中韩渔业资源联合增殖放流和第十九届中韩渔业联合委员会会议。2019年，中国在韩国水域违规渔船同比下降20%以上。与越南联合举办中越北部湾渔业协定实施十五周年评价活动，发表中越北部湾渔业协定实施十五周年总结联合声明，召开中菲渔业联委会第三次会议。

二、2020年展望

（一）继续促进海洋经济高质量发展

2019年1月17日，全国自然资源工作会议提出“加强海洋强国建设，促进海洋经济高质量发展”要求后，各沿海地区和涉海产业纷纷出台了相关政策和措施，2020年是落实相关政策的关键之年，在改革创新、提质增效、科技支撑、政策保障方面还会继续对促进海洋经济高质量发展提供支持。

（二）保护海洋生态环境

2019年，生态环境部联合国家发展改革委、自然资源部进行渤海综合治理攻坚战行动，提出到2020年，渤海近岸海域水质优良（一、二类水质）比例达到73%左右，自然岸线保有率保持在35%左右，滨海湿地整治修复规模不低于6900公顷，整治修复岸线新增70公里左右。2020年是攻坚行动的关键一年，需要进行岸线修复、滨海湿地整治等重点任务。



CONTENTS

(三) 打造稳定的周边海洋安全形势

2019年中国周边海洋形势总体保持稳定, 中国与周边国家开展了各类形式的海洋合作, 促进了海洋命运共同体的实践。2020年, 中国将继续发展与韩国、日本以及南海周边国家关系, 打造一个和平稳定的周边海洋形势。但是, 美国在推进印太战略过程中, 中美在西太海域与中国的战略博弈将长期存在, 在东海、台湾海峡、南海海域还会以以各种形式、各种手段、各类借口制造海上矛盾, 因此, 传统海洋安全威胁发生的机率仍将存在。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수담수화 발전 현황
- ▶ 전문가칼럼 : 2019년 중국 해양이슈 회고 및 2020년 전망
- ▶ 동향 & 뉴스

해운 · 항만 · 물류

- 교통운수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코로나19 대응 기업지원을 위한 항만비용 인하 정책 발표
- 코로나19 상황에서 2월 중국 도로화물운송 시장 분석보고
- 중국항만협회, 주요 항만기업 생산현황 호전
- 중국 우정국 2020년 2월 택배발진지수 발표, 2월 택배량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
- 2019년 중국 연안 화물운송선박 운송능력 분석 보고
- 중교통운수부, 고(高)위험지역 여객선 회전을 50% 초과 금지
- 상하이해사국 10가지 서비스 조치를 통해 기업 생산 재개 지원
- COSCO Holdings 자회사인OOCL 7.78억 달러 규모 컨테이너선 5척 발주
- 코로나19로 봉쇄되었던 각 지역 교통운송 속속 정상화
- 상하이항·텐진항, 장치장 냉장·냉동컨테이너 포화 문제 완화
- 2월 광시 베이부완(北部湾)항 컨테이너물동량 전년 동기대비 44.25% 증가
- 장쑤 타이창항 2020년 컨테이너 업무 발전 조치 발표, 25개 항목의 인센티브 내용 포함
- 세관총서, 기업 생산재개 촉진을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 항만자원 통합 강화, 연해항만 철광석터미널 배치 최적화 추진
- 저장(浙江)성, 국제선박에 “건강 코드” 설치
- 중국 1-2월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 4.12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9.6% 감소
- 선전(深圳)해사국 15가지 조치 발표, 해운항만기업 업무 재개 지원
- 국가발개위: 물류기업 생산 재개 비율 60% 이상 기록, 지속적인 회복세 나타냈음
- CMA CGM, 중국 해운 컨테이너 화물량 이미 반등 시작
- 칭다오 국제해운무역금융혁신중심 정식 설립

해양 · 수산

- 산둥성(山东省), 코로나19 방역 및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조치 발표
- 광시성, 디지털 경제와 해양경제 융합발전 도모
-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해양관광업 빠른 회복 전망
- 「광둥성 국토공간 생태복원 계획(2020-2035) 편성 업무방안」 발표
- 중국 농업농촌부, <2020년 어업어정사업요점> 발표
- 산둥 칭다오항, 중국-베트남 수산물 환적 운송 항로 개설
- 랴오닝성, 코로나19 방역위해 해외조업 어선관리 강화
- 농업농촌부, 중국 수산종묘 생산능력 80% 이상 회복
- 중국해양석유그룹, 올해 중국 국내 석유가스 생산량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
- ‘해양지질10호’ 조사선, 광둥해상풍력단지에 관한 조사임무 수행하러 출항
- ‘해상 형사사건 관할 등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발표
- 하이난성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해상환경위생(海上环卫)제도’ 수립
- 중국(산둥)자유무역구 해양경제혁신센터 현판식 열림
- 허베이성, 해양생태환경 품질 개선을 위해 만장제(湾长制) 전면적 추진
- 후난창사에서 3개 국제화물 항공편 회복, 65톤 캐나다 랍스타 도착
- 짱수성 수산경영 주체 90% 정도 재개
- 광시자치구 어업기업 100% 재개
- 칭다오 수산물 생산-판매 연결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수산물 판매부진 해결
- 중국이 러시아 대구 수입량 감소, 러시아 어민 새로운 시장 모색
- 광둥성 주장 수역에서 올해 3월 1일~6월 30일 금어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